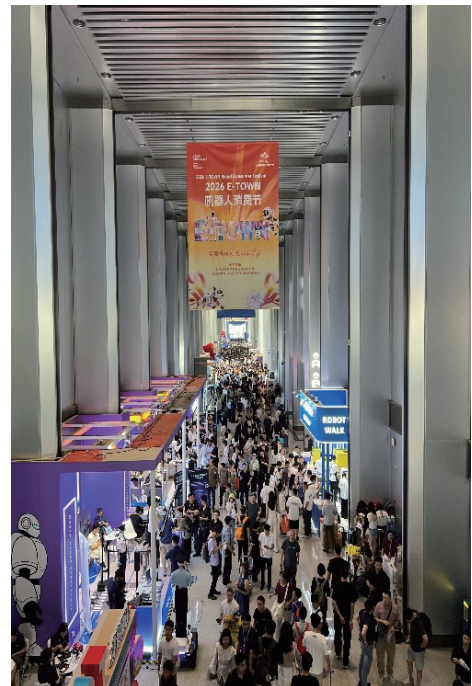


2026 WRC 참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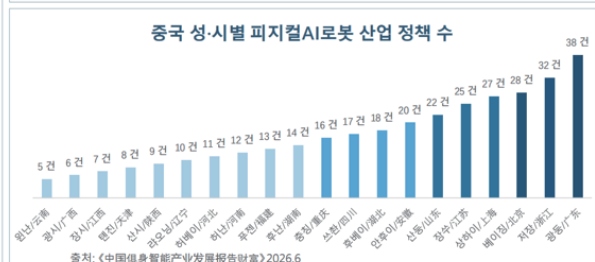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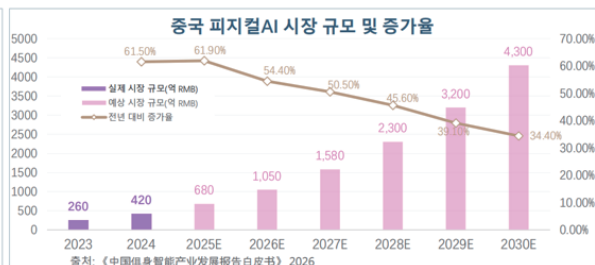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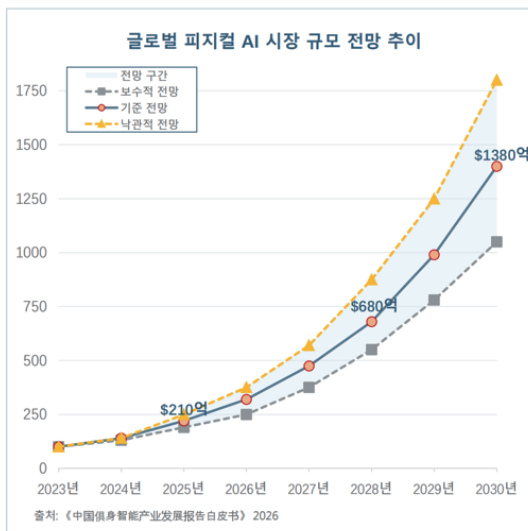
- 뉴로메카 중경JV 기술영업부 박준혁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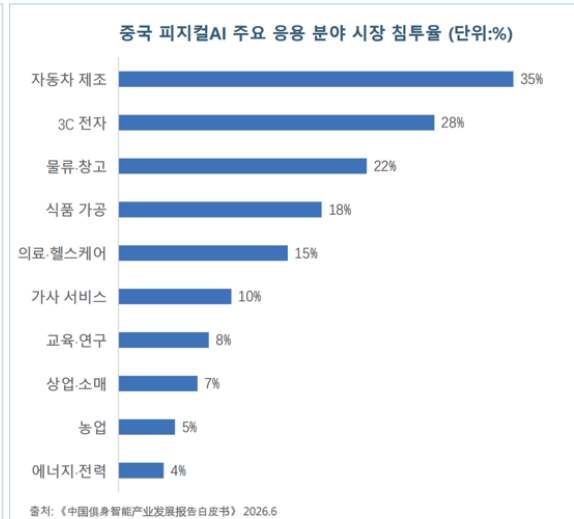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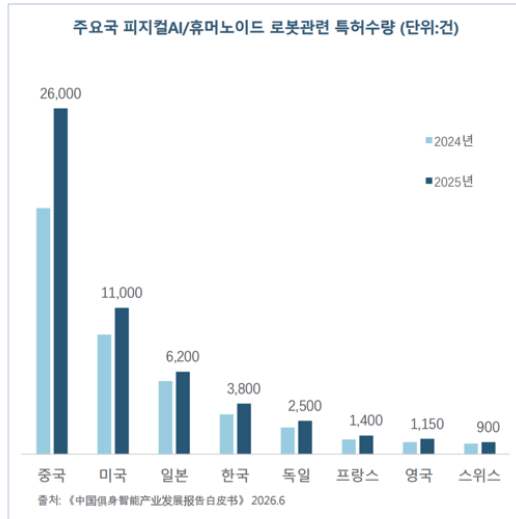
1. WRC(월드 로봇 컨퍼런스)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WRC(월드 로봇 컨퍼런스)는 로봇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행사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함께 키우고, 혁신 기술이 이끄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다” 라는 주제로 포럼, 박람회, 로봇 경진 대회 등 다양한 연계 행사를 진행한다. WRC는 국제성과 전문성을 갖춘 완성도 높은 행사로, 로봇 산업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혁신 체계와 산업 생태계를 함께 조성한다. 이를 통해 세계 로봇 분야의 혁신과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세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 글로벌 및 중국 피지컬AI 산업 현황





글로벌 피지컬AI 시장은 2025년 210억 달러에서 2030년 1,3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시장도 2023년 260억 위안에서 2030년 4,300억 위안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지컬AI·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특허 건수는 중국이 2025년 기준 26,000건으로 2위 미국(11,000건)을 크게 앞섰고, 한국은 3,800건으로 4위에 올랐다. 중국 내 응용 분야별 시장 침투율은 자동차 제조(35%), 3C 전자(28%), 물류·창고(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산업시찰

Noetix Robotics

휴머노이드 로봇 및 임바디드 AI에 특화된 하이테크 기업으로 1만 RMB(한화 약 210만원) 소비자용 휴머노이드 로봇 Bumi와 2025년 로봇 하프마라톤에서 2위와 4위를 기록한 N2가 유명하다.



좌측 : Bumi / 우측 : N2 Noetix 본사

개인적으로 Noetix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산업현장에 투입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 애초에 가정용과 교육용으로 설계되어 액추에이터의 정밀성도 떨어지고 고하중의 작업을 수행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하지만 무서운 점은 서비스용 로봇을 210만원까지 절감한 기술력이다. 98cm의 소형 휴머노이드라도 21개의 관절이 들어가는데 저 단가라니... 산업용 로봇에 적용된다면 그 경쟁력을 따라갈 수 있을까? 상상하기도 싫다.

NEOLIX

네오릭스는 베이징 이창에 기반을 둔 L4 C급 자율주행 무인배송차 기업이다. 회사는 ROBOVAN이라 불리는 무인배송차를 중심으로 도시 물류, 택배, 산업단지, 캠퍼스 등 배송분야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운전석과 핸들이 없는 형태로 설계되며, 자율주행 S/W, 차량 H/W, 운영 플랫폼을 결합해 물류기업과 유통기업에 배송 솔루션을 제공한다.



NEOLIX를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 중국의 수많은 도시에서 약 25,000대가 무인배송을 수행하고 실시간으로 차량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연히 실시간 위치도 알 수 있다. 무서운 점은 배송용 차량을 상하이 폭스바겐에서 생산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조차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수가 되니 대기업에서 이런 시장까지 뛰어든다. 우리나라의 엔티1이란 회사에 투자하여 한국 시장에서도 시범운영지구에서 활용하도록 준비중이고 정부 승인과 인증이라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특례 관련 국토부와 협의중이라고 한다.

4. 한국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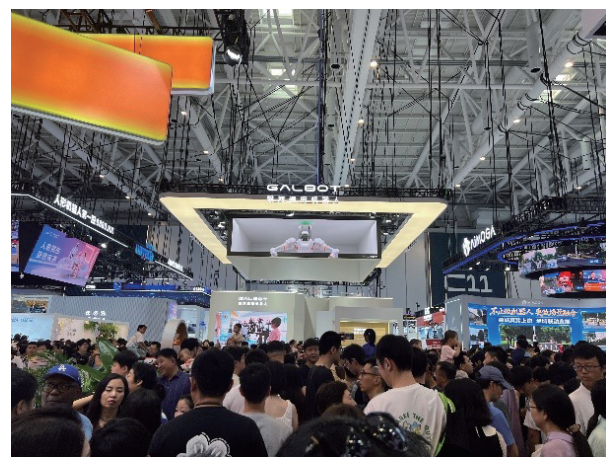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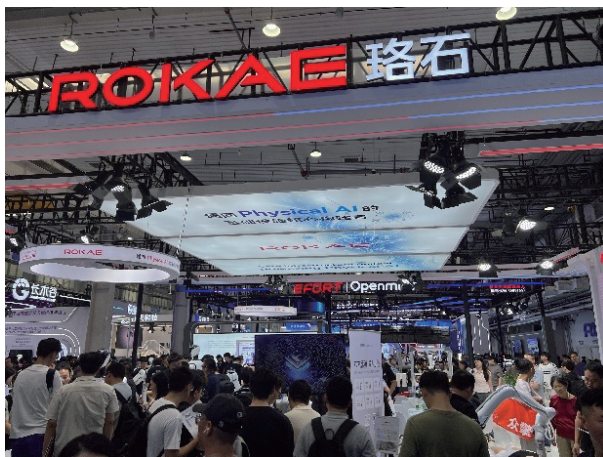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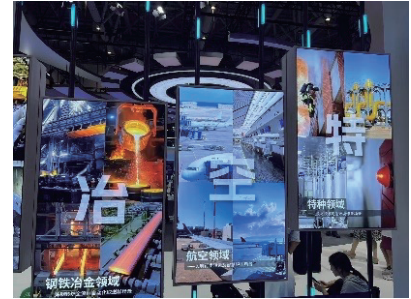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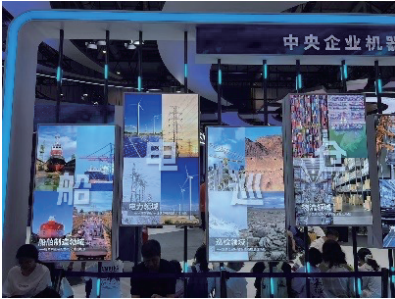
WRC 기간 동안 글로벌 혁신센터(KIC중국)와 KOTRA(베이징 무역관) 공동으로 “한중 로봇혁신 파트너십 워크”를 진행했고 12개 업체가 선정, 그 중 6개 업체가 한국관에 출품을 했다. 뉴로메카는 6개 업체 중 한곳으로 선정되어 한국관에서 유일하게 로봇을 전시했으며 가장 큰 환영을 받았다.



이준석 국회의원, NVIDIA 디렉터 매디슨 황(젠슨 황 딸) 등을 비롯하여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물산, CATL, 텐진COSCO 등 한중의 다양한 기업 및 전시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독차지했다. .

5. 전시회 참관

월드 로봇 컨퍼런스답게 정말 많은 로봇 관련 업체들이 참가했다. 묘기와 시연 위주의 업체는 여전히 많았지만 이제는 일하는 로봇, 상용화에 초점을 맞춘 업체들(마트에서 계산, 커피 제조 및 서빙, 공항 수하물 운반 등등)도 눈에 많이 띄었다. 로봇이 일상 생활에는 많이 들어와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노동력을 대체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앙기업이 로봇 10대 고부가가치 응용환경을 선정했는데 조선, 에너지·전력 인프라, 위험 환경, 물류·유통, 자동차, 농업, 건설, 철강, 항공, 특수 환경이다.



모터, 감속기, 엔코더, 액추에이터, 센서류 등 로봇 핵심부품 업체들과 시뮬레이션 데이터, 로봇 평가 플랫폼 등 시뮬레이션 성능을 평가하는 업체도 만날 수 있었다. 전시회에서 컨택한 업체들은 리스트를 만들어 본사와 공유할 계획이다.

6. 마치며

올해 초 처음 로봇업계에 발을 들인 후 많은 산업 현장과 전시회를 다니면서 뉴로메카의 로봇들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해왔다. 이번 WRC를 거치면서 내린 결론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말 많은 기업에서 관심을 가졌고 특히 용접 관련 업체들은 모두 발을 멈추고 작동원리, 견적, 레퍼런스 등 많은 문의를 해왔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 본사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TF팀을 꾸려서 더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본다. 올해는 본사에서 한 분도 참가하지 않았지만 내년에 개최되는 WRC에는 많은 분들이 참가하기를 희망하며 2026 WRC 참관기를 마친다.



뉴로메카 중경JV 룸메카 소개(컨퍼런스 참가인원 7명) :

오른쪽부터 최철수 총경리, 기술영업부 최화 매니저, 박준혁 팀장, 경영지원 재무부 전옥란 주임, 경영지원 총무 전령 매니저, 기술부 S/W 리하오 엔지니어, 경영지원 유승화 부장

뉴로메카 여러분의 중경JV 방문을 기대합니다.

